



# 우리가락 우리소리 입맛따라 즐겨보세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초대석  
이야기보따리·풍류마루 등  
매주 다른 주제로 공연

## 이달부터 11월까지... 7·8월 제의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공연 '2018 토요국악초대석'은 3월부터 11월까지(7·8월 제외) 이야기보따리·풍류마루·국악타파·관소리마당 등 매주 다른 주제로 국악공연을 선보인다.

토요국악초대석은 총 19개 국악단체 공연과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을 25주 동안 총 31회 펼쳐 보인다.

먼저 첫째 주 '이야기보따리'는 36개월 이상 유아들이 감상할 수 있는 국악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문화제작소 코어의 '조선호랑이 어흥'과 동화 '어린왕자의 지구보고서'를 비롯해 창작스튜디오 '깨비야 놀자', The林의 '꼬꼬만냥'이 어린이들과 만난다. 또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제작으로 국악

체험 음악극을 무대에 올린다.

둘째 주 '풍류마루'에선 옛 마루에서 즐기듯 민속춤과 음악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 이선희의 거문고 '현금풍류', 조경선·서승미의 거문고와 대금 '동행', 이세나의 아쟁 '꿈다', 정자경의 가야금병창 '여정', 김보라의 가야금 산조, 무무현의 춤 모노드라마 '계현순의 맛있는 춤 7첩 반상' 등이 마련된다.

또한 국악과 타 장르간의 크로스오버 및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악단체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류지악의 'Project 4인4색', 국악이상의 '이상적 풍류', 박소연의 '거문고 병창놀이', 여자들 피리피리 '전통음악과 아일랜드 전통음악의 만남' 등이 셋째 주에 공연된다.

관소리 다섯마당의 주요 눈 대목을 들려줄 '관소리마당'에는 채수정, 현미, 강길원, 고준석, 지아름, 정승희, 이지숙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관소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소리꾼들이 무대에 선다.

2018 토요국악초대석의 첫 공연은 10일 문화제작소 코어의 '조선호랑이 어흥'.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에 있는 여러 호랑이 이야기를 하나로 엮었다. 호랑이 오누이의 이야기와 재미난 놀이가 함께하며 국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공연은 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리며, 매회 100명씩 선착순 예약제로 진행된다. 예약은 해당공연의 개최 1개월 전부터 전화 620-2324~5)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올 전북관광브랜드 뮤지컬 '홍도' 캐릭터 그리기 공모 시상

최우수작에 최연희씨 작품 2편

작품은 내달 27일 선보이기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8년 전북관광브랜드 공연 뮤지컬 '홍도'의 캐릭터 그리기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재단은 캐릭터 공모작 총 28점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최연희 씨의 작품 외 2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작품은 앞으로 뮤지컬 '홍도'의 홍보물 제작과정에 쓰일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현재 재단 정면 현수막으로 제작, 작품의 홍보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전북관광브랜드공연 뮤지컬 '홍도'는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소설 '홍도'를 무대화 한 작품. 400년 동안 첫사랑을 기다리는 홍도의 애틋한 사랑과 400년 전 인간존엄과 평등사상을 외치며 송고한 희생으로 생을 마

감한 정여립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 작품은 역동적인 음악과 군무를 가미한 뮤지컬로 제작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27일 선보일 예정이다.

최연희 씨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년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브랜드공연 제작과정에 캐릭터 그리기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홍도를 그리던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전주국제영화제, 오늘부터 '부활 지프지기' 모집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부활 지프지기' 모집을 5일부터 시작한다.

'부활 지프지기'는 지원 시기를 놓쳤거나, 재도전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특별 추가모집이다. 모집인원은 총 5개 팀 14개 분야 40여 명이며, 만 18세 이상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5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신청은 지프지기 홈페이지(<http://volunteer.jiff.or.kr>)에서 하면 된다.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면접심사를 거쳐 27일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예정된 지프지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영화제 기간인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인 지프지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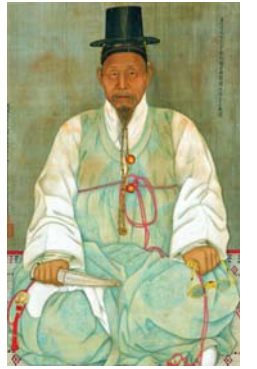


봉사시간 인정,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호남 지식인의 면모 그림으로 살펴보다

국립전주박물관, 이정직·채용신 작품 전시

국립전주박물관은 봄을 맞아 석정 이정직(1841~1910)과 석지 채용신(1850~1941)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전시되는 작품은 이정직의 서화첩·목매도·괴석도·8폭 행서병풍과 채용신이 그린 김관·김영구·권기수의 초상 등이다.



채용신 '권기수의 초상'

19세기 전북 김제에서 활동했던 석정 이정직은 학자이자 화가, 서예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사군자를 비롯하여 괴석 그림을 즐겨 그렸으며, 그림과 글씨에서 여러 제자를 배출했다.

또한 서양의 베이컨과 칸트의 철학을 처음으로 조선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며,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삶은 학에 일치를 추구한 조선의 선비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석지 채용신은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걸쳐 활동한 화가로 1905년 관직을 마친 후 전주에 내려와 여러 인물들의 초상을 화폭에 담았다.

그는 최익현, 전주, 황현 등 많은 우국지사의 초상을 남겨 호남의 선비문화를 살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체 전시된 이정직과 채용신의 작품은 호남 지식인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정해은 기자



이정직 '석국도'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